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한예슬



절절한 사랑...이제는 여인

한예슬(28)이 한껏 사랑스러운 여인이 된다. 그는 내달 2일 첫선을 보이는 SBS TV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서 대채 없이 씩씩하고 밝고 천진한 한지완 역을 맡았다. 25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난 한예슬은 “내가 과연 이런 살아있는 역할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역할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하지만 반대로 욕심도 생겼다. 정말 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지완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느새 내가 지완의 덕을 보고 있다”며 “역할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요즘은 지완과 사랑에 빠져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웃었다. 지완은 두 명의 남자와 잇따라 사랑에 빠진다. 고등학교 시절 동네 오빠 강진(고수 분)을 사랑했고, 자기 친오빠의 불의의 사고로 동네를 떠난 후 성인이 되서는 태준(송중호)을 사랑하게 된다. “지완은 강진과 어렸을 때 첫 만남에서부터 사랑을 느껴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강진과 헤어진 뒤에는 태준이 첫사랑의 빈자리를 채워주죠. 그런데 그때 잊었던 첫사랑이 다시 나타나면서 갈등에 빠지게 되죠.” 한예슬은 지금껏 밝고 코믹한 역할을 주로 맡았다. 이번에도 밝은 캐릭터지만 절절한 사랑을 한다는 점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캐릭터와 좀 다르다. 단선적이지 않기 때문

에 한층 익은 연기력이 요구된다. “굉장히 부담도 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대도 돼요. 현장에서 감독님이 만족할 정도로 연기를 소화했을 때의 성취감과 희열은 무엇보다 바랄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도전이 되는 만큼, 어떻게 되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자체가 행복해요.” 지완은 태준을 사랑하지만 약혼식장에서 갑자기 태준으로부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이때도 밝은 모습으로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에 더 예쁜 모습으로 약혼식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 시각 태준은 옛 연인 우정(선우선)과 함께 있다. “참 가슴 아프고 황당한 순간이지만 평소 지완의 성격으로는 그런 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섬세함이 있지만 태준을 믿고 이겨내려고 하죠. 그런 지완이 사랑 때문에 결국은 상처받고 고민하게 되는데, 연기를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눈물 연기도 많이 보여주게 된다. “눈물 연기, 어렵죠. 하지만 정말 그 상황이 슬프면 어렵지 않아요. 지완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같아요.” 한예슬은 “내가 지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질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며 일어서고 싶다. 지완이처럼”이라며 웃었다. /연합뉴스

‘지붕뚫고 하이킥’

윤시윤



푹푹한 사랑...아직도 소년

“준혁이는 소설 ‘소나기’의 소년과 비슷한 캐릭터예요. 사랑도 그 소년처럼 하지 않을까요?” 시청률 20%를 넘나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MBC 일일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고등학생 정준혁으로 출연 중인 윤시윤(24)은 자신의 배역을 이같이 소개했다. 학교 ‘짜음짱’에 과의 선생님이 황정음에게 반말을 툭툭 던지지만 속으로는 가사도우미인 신세경을 남몰래 연모하며 가슴앓이 하는 모습이 담긴 윤시윤은 “원래 자서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웬지 모르지만 요즘은 예전에 읽었던 소설을 다시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나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 준혁이가 소설 속의 소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연출을 맡은 김병욱 PD도 소년이 할 법한 푹푹한 사랑을 주문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발치에서 바라보며 마음 한 곳이 시큰해지는 그런 사랑.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드라마나 영화를 부지런히 챙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 정준혁이 아닌 윤시윤의 본래 모습은 어떻게. “준혁이랑 많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호감이 생기면 장난도 잘

쳐요” 이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소나기’에서 소녀를 기다리며 조약돌을 만지작거렸던 그 소년을 보는 듯하다. “아, 웃는 얼굴이요? 그렇지 않아도 감독님이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캐스팅했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준혁이 역할을 위해 정말 오랫동안 오디션을 봤어요. 하지만 감독님이 뭔가 특별히 요구하신 것은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신인의 푹푹함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얀 피부와 끈끈한 코 때문에 ‘제2의 정일우’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것에 대해 그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년 같은 이미지 때문에 누나 팬들이 많을 것도 같지만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오히려 초등학생 팬들이 많다고 한다. “촬영장에 가면 누나 팬들은 이지훈 역의 다니엘 형에 쏠리고 저한테는 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몰려요. 한번은 한 초등학생이 저보고 ‘연기는 할만 하나?’며 당돌하게 묻기도 해서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꾸미지 않으면 길거리를 다녀도 잘 알아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하” /연합뉴스



‘미남이시네요’ OST
앨범판매 3만장 돌파

SBS TV 수목극 ‘미남이시네요’의 OST 앨범 판매량이 3만 장을 돌파했다. ‘미남이시네요’ OST 제작사 F&C뮤직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미남이시네요’ OST 앨범 파트 1과 지난 19일 발매된 ‘미남이시네요’ 파트 2 앨범의 판매량 합계가 3만 장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OST 파트 1은 발매 1주일 만에 판매량 2만 장을 기록했고, OST 파트 2는 지난 20일까지 판매량 1만 장을 넘어섰다. ‘미남이시네요’ OST에는 주인공 장근석, 정용화, 이홍기, 박신혜가 부른 노래가 수록돼 있다.

(주)골프세상에서
당신만을 위한 클럽을 만나보십시오.

골프세상 상무점 11월 5일 OPEN

062-385-0689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231-3번지 1F

novita

아직도 비데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김철이선생! 노드이생! **신뢰할수 있는!**
노드이생! 김철이선생! **신뢰할수 있는!**

노비타비데프라이버시

비데프라자

062-515-1144